제344회국회 (임시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7월21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교육부
   다. 국토교통부
   라. 여성가족부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 1
o 위원장(나경원) 인사 ····· 2
2. 간사 선임의 건 ····· 2
o 간사(장제원·진선미·김광수) 인사 ····· 3
3. 업무보고 ····· 5
   가. 보건복지부
   나. 교육부
   다. 국토교통부
   라. 여성가족부

(10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저 박병석 위원이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통지되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개최되게 됐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 방법은 구두로 호천하여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런 관례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교섭단체 간 합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구 출신 새누리당 장제원 위원입니다.

이번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회 위원장으로 저희 새누리당에서 서울 4선 중진 의원으로 또 국회에서는 상임위 위원장을 지내시고 법사위 교문위 정무위 활약을 두루두루 하시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으시고, 이번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실 우리 나경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병석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 새누리당 나경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선의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장직무대행,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o 위원장(나경원) 인사

(10시09분)

○위원장 나경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나경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원만하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젠다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갖고 우리가 국회에서 이 특위에서 존경하는 여야의 대단하신 역량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출산 위원장으로서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당대표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안 나가겠냐고 물어보시는데, 그중의 한 가지 가장 큰 숨겨진 이유가 저출산·고령화특위 위원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서 당대표 출마 안 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초선 의원이던 시절부터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서 국회는 논의했었고요. 그때부터—2005년부터지요—정부가 약 10년 동안 110조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출생 인구는 1년에 40만 명 정도 내외를 보여 주고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년간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모두들 의문시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이고 미봉적인 대책에 그치지 않았느냐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또 작년에 제3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과연 그 대책이 정말 효과를 거둘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국회 특위에서 범정부적인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선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우리가 같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동안 저출산·고령화특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같이 논의하면서 저출산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고령화 쪽 문제는 조금 도외시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제안들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정말 중장기적인 접근을 비롯해서 사회 가치·문화를 바꿔 가는 일까지도 같이 노력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면서요, 오늘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3분)

○위원장 나경원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1인씩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선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새누리당의 장제원 위원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님, 국민의당의 김광수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상의하시고 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o 간사(장제원·진선미·김광수) 인사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장제원 위원님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장제원 위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 선임된 장제원입니다.

이의를 제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없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위기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의 문제,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 주거의 문제, 실업의 문제, 격차의 문제, 보육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점들에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다면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위원회라고 아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숙제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과 진선미 간사님 또 김광수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알차고 성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간사를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갑 진선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간사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저 스스로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간사 역할을 참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한 번 더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치 않고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라고들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만큼은 그 어느 특별위원회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모든 위원님들의 역량들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제원 간사님 또 진선미 간사님, 위원장님이신 나경원 위원장님 모시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특위는 정말 국가적인 어젠다이고, 당면한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관심을 덜 받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특위에서는 실제적으로 정책적 효과를 내는 그런 실질적인 특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위가 보통 6개월 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더 단단한 각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회의니까 위원님들 상견례 겸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장제원 위원님 하셨으니까 김학용 위원님부터 간단히 인사말씀하시도록 하지요.

○김학용 위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되면서 저의 보좌관들이랑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3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앞으로 나중에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무언가 그래도 거억에 남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국회의원으로 김학용이 기억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나를 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빠졌는데 제가 정진석 대표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끝판에 규제개혁위원회가 빠지고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박성중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박성중 위원 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위원입니다.

저는 서초에서 구청장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피부로 느끼고 또 실제 장려정책도 직접 시행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 삼아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드리고 또 새로운 어떤 보완책을 같이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새누리당 비례 윤종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딸을 가진 부모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심층 깊게 짚어 보고 저출산이 고출산이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안녕하세요?

여기 와 보니까, 늦게 왔습니다만 정말 훌륭하시고 또 역량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 선택을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일상적인 이런 업무로 치부되어 있는데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쇄신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싶고요.

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아직 많이 안 나서 걱정들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일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임이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 노동자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이자입니다.

저는 평상시 현장 노동을 하면서 겪었던 부분에서 모성보호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현장에서 늘 그것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약속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방은 인턴도 고령화 분 중에서 한 분을 채용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감사합니다.

다음 최교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교일 위원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우선 훌륭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특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평소에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오늘도 기재부와 당정협의 때 저출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저출산 문제 제가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홍의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실 줄 알았는데.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위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전문적인 부분이 없어서 과문한 부분 많습니다마는 배우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지역에서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권미혁 위원 오전에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경원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광온 위원 훌륭하신 위원님들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당을 떠나서 또 국회와 정부를 떠나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병석 위원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경륜 있는 위원님들 말씀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찬대 위원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갑의 박찬대 위원입니다.

정무위 소속이고요.

이번에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약속을 했는데요.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커다란 세 가지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 기여하겠다. 노력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커다란 세 가지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으며 대기업만 위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출산·고령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여하는 위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선배님들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재근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 위원입니다.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다음은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입법조사관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입법조사관들입니다.

(직원 인사)

---

3.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교육부

다. 국토교통부

라. 여성가족부

(10시26분)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된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지금 결산 의결을 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문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산회 후에 참석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면서 차관께서 보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입니다.

존경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출산은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과 지역사회도 존립 자체의 위험이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2020년부터 노인세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급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은 만혼·비혼 추세 심화와 일하는 여성의 낮은 출산율을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요인으로 진단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 해법 모색, 일·가정 양립의 실천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물질적 가치관과 무한경쟁 속에서 퇴색되어 가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고 결혼·출산 친화적 인식과 문화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소득보장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 고령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분야까지 고령사회 대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을 통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여 초저출산 장기화 추세에서 벗어나고 OECD 최고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립된 대책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 지역이 함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추진동력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산과 법률의 뒷받침이 없다면 저출산·고령화대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굵직한 입법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1984년 합계출산율 1.76명을 기록하여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저출산대책을 수립했던 정책 실기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장기화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저출산 해결은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 사례에서도 20~30년에 걸친 전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을 회복하였습니다.

인구위기 대응은 늦었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장기적 안목에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역동성을 발휘하면 못 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이 인구위기 극복의 희망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김헌주 노인정책관입니다.

정충현 보육정책관입니다.

박인석 연금정책국장입니다.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인구정책실장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 저출산·고령화 대응평가 및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 시작된 저출산 추세는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미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균수명도 2007년부터 OECD 평균을 넘어서는 등 최장수 국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2020년 이후 고령화가 가속될 전망입니다.

생산가능인구는 내년부터 감소하여 203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 위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화되어 2030년경에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노동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도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투자증가율도 지속 감소하여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동욱 실장, 지금 부처가 보고할 게 많기 때문에요, 조금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추진방향과 주요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그러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고 노인빈곤율을 3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30년에는 인구구조가 안정화되고 노년이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두보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브릿지 플랜 2020'으로 명명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결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의 파이를 키우고 민간 청년 고용을 촉진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등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여 결혼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고용 대책은 고용노동부가, 주거지원 확대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2017

년부터 난임시술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난임 휴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우선 초음파, 1인실 사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건강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운영하고 진단·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입양가족에 대한 아동양육 지원 현실화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돌봄이 확대되고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추진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개편을 정착시키고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아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이 학교에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내 돌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등돌봄과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상세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벌·스펙이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사교육 유발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적성과 능력 중심으로 교육과 고용 연계를 강화하고 입시개선 등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상세 내용도 교육부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일상화는 일하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대책입니다.

우선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성의 독박육아 해소를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하며 육아휴직제도의 중장기 개편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고령사회 대책입니다.

먼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업주부의 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고 근로빈곤층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등 1인 1 국민연금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나가겠습니다. 가입 후 10년이 지나야 연금이 지급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즉시 연금이 지급이 되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기준도 완화해서 연금수혜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실현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치매 검진부터 치료까지 종합적 국가치매관리 대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포괄간호·간병서비스 확대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노인자살 예방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활기차고 당당한 새로운 노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령자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교통사망자 비율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중고령자·외국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워크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고령자 고용기반 강화를 위해 60세 정년을 안착시키고 이모작 고용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이민 도입 규모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등 총체적 외국인 유입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고용 활성화 방안과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부에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고령사회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산업이 실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 국방분야의 인구다운사이징 대책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전 사회적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각계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사회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전사회적 협력의 구심점으로 삼고 경제계, 종교계, 시민단체,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문화 개선도 중요합니다.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릴 때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젊은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도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법령·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서 출산친화적으로 조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19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되며 저출산대책 분야에는 약 109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관련 재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부처 업무보고는 조금 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이영 교육부차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입니다.

아까 말씀 들으신 대로 저희 장관님께서는 지금 상임위에 출석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부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육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부분이 실제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필요한 교육의 내용 그리고 필요한 교육의 분야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비하는 대책과 미래지향적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저출산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3~5세 아이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돌봄서비스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 돌봄 확대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족해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평균 평생교육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학력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다양한 평생학습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는 조언들을 향후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입니다.

오승걸 학생복지정책관입니다.

서유미 대학정책관입니다.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입니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위원님들 지금 업무보고 책자로 다 있는데요. 굳이 다시 보고 안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지요? 간단히 보고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원 학교정책실장께서 보고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이영 차관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김동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동원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결혼·출산 기피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은 여전하고 공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인구 고령화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인구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 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선취업 후진학 등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평생교육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3쪽입니다.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만 3~5세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으로 생애 출발선으로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 1~2학년생을 위한 돌봄을 2020년까지 총 26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공교육 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정하여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선행학습 전면 금지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우려에 따라 일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완화를 위해 개정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대학별 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해서 학교 공부만으로 평가와 입시 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로 학원비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국가장학금의 최대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규 수급자 발굴을 통하여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생애주기에 걸친 인적 자원 개발 강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전담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선정·운영하는 한편 대학 내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지원하는 등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학습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누구든지 필요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를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기회로 활용하여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 교사 일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생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을 감축하여 양성 규모 적정화를 추진하는 한편 교원양성기관별 특성화 전략을 통하여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출산·고령화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동원 학교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에서부터 경쟁력 있는 국토 공간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신혼부부와 고령자의 주거비 경감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결혼·출산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어 가겠습니다.

향후 5년간 신혼부부 등에게 행복주택,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 14만 호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전세·구입자금의 금리 우대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도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구입·전세자금의 금리 우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자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고령자용 편의시설 설치와 원스톱 상담서비스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자·임산부 등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금년에 저상버스 700대를 보급하여 보급률을 23%까지 끌어올리고 터미널과 철도역사 등 주요 교통시설의 교통약자 이용 편의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시설개선 등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한 국토교통분야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병석입니다.

주택토지실장 박선호입니다.

교통물류실장 이승호입니다.

주택정책관 이문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2페이지 주요 정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분야 대응 방안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행복주택 5만 300호, 전세임대 2만 호, 국민임대 3만 9000호 등 총 14만 호의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투룸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보육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 10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 및 5년·10년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한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도 입주 기준을 완화하여 매년 4000호씩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육·세탁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기업형 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한 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이고 전세 및 구입자금의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방안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고령자 친화형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향후 5년간 고령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영구·국민임대 5000호, 행복주택 1만 5000호, 전세임대 1만 호를 공급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도 내년까지 2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밖에 65세 이상의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주택개량 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주거복지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마이홈센터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교통분야 대응 방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저상버스 700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전체 시내버스 대비 보급률을 22.8%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터미널과 철도역사에 무장애 설계 등을 도입하고 인천공항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출국장을 확충하는 등 주요 교통시설의 이용 편의도 제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등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고 고령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도 실시하는 한편 도로 등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통합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께 여성가족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저출산·저성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와 주거·교육 외에도 만혼과 젊은 여성들의 결혼 기피현상에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과 가족 내 양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도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가사와 육아의 양성 평등한 분배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양성평등문화의 확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가족부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 극복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온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활성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이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및 직장에서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가족 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모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사회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가기관들의 역량 결집과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성가족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성지 여성정책국장입니다.

황진구 청소년정책관입니다.

윤효식 가족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기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강은희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이기순입니다.

준비된 자료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률, GDP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출산률, 여성고용률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인재 활용과 일·가정 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이를 뒷받침할 양성평등문화가 사회 전반에 안착되어야 합니다.

2쪽입니다.

그간 일·가정 양립제도 개선 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족친화경영 실천 기업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고, 여성 고용률도 2015년 5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3쪽, 아직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아직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이 미흡하고 여성고용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으나 OECD국가 평균 고용률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지지가 아직 부족한 형편입니다.

4쪽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극복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확산, 여성 고용 활성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등 4대 전략과 14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하여서 민간부문의 가족친화경영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여서 올해 말까지는 1800개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민간과의 협업체계인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실천 TF를 구축하여서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CEO가 참여하는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서 초보아빠 수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겪는 일·가정 양립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워킹맘·워킹대디 사업을 2020년까지 226개소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보다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일터 복귀를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20년까지 175개소로 확충하고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을 도입해서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여성 창업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가족 유형에 따라 분리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고 지원 기관을 2020년까지 226개소로 늘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개설하고, 혼인관계자 자격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한부모 가족들이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행 과정을 좀 더 편의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에 계속되는 내용인데요.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문화 가족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양성평등 인식을 어린 시절부터 가질 수 있도록 초중고교의 교육과정과 예비교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아동학대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부모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쪽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비용 개선을 위한 작은 결혼식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고, 소비주의적 육아문화를 개선하는 등 출산친화적 사회문화를 조성해 나가서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저희가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기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정진엽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난제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중에 역시 대표적인 큰 난제가 바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가 되면 극단적으로 2300년에는 인구가 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불과 14년 후면 65세 이상 인구가 25%가 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네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80조 그리고 고령화대책까지 하면 110조를 쏟아부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시 다뤄야 될 숙제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학용 위원 사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럽의 프랑스 같은 데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대표적인 나라로 뽑고 있습니다마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민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비교하기가 적절치 않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2010년 10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제3차 개각을 단행하면서 발표한 '1억총활약' 들어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학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50년 후에도 일본의 인구를 1억으로 유지하고, 모든 1억 인구가 열심히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1억총활약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맞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24 정도 되고 일본이 1.42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이 저출산 문제 극복이 국정의 몇 번째 정도 과제로 채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김학용 위원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장 중요할 과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만의 힘으로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가 본인이 직접 일본의 최우선 국가 과제로 삼고 또 1억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하고 초대 장관에 아베 총리 최측근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8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이지만, 약간의 도움은 됐겠습니다마는 저는 실패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80조를 쏟아부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정확한 원인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동안은 주로 보육 쪽에, 출산을 한 다음에 애를 키우는 데 역점을 두어서 보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만혼 또 비혼 또 애를 잘 낳지 않으려는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것이 단순히 그저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 나경원 위원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사회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사회현상의 변화로도 봐야 되고 문화적인 측면, 철학적인 측면이 다 한꺼번에 녹아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면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주저되고 있는 세상이다……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가 크면 부모님 세대보다는 낫겠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저부터도 과연 제 자식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 속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졸업하고 또 늦게 취업하고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을 하는 딜레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드리느냐면 이것이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로는 해결이 안 된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인구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의 신설이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인구 문제를 총괄할 부처의 신설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현재 컨트롤타워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위원회에서 올해 들어서도 벌써 두 번 대면회의를 하시고 서면회의까지 해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고요.

○김학용 위원 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칸막이가 심한 그런 조직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 제1 과제로 삼고 대통령께서 직접 컨트롤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대통령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좀 힘을 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장관님이 사실 정책 실패에 대한 경험도 있고, 이게 백약이 무효하다는 얘기도 있다 할 때 정말 공감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이 되려고 하면, 그동안 1·2차 기본계획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차 기본계획의 목표 대비 성과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하고 3차 계획이 이후에 어떻게 잘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년 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결과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1·2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나 성과평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부처가 다 불응했고요, 그냥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취합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그동안에는 저희가 집행실적 위주의 평가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행계획 자체도 평가를 하고, 이번에 저출산·고령사회 분야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과만 행자부의 도움을 받아서 7명의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평가과를 신설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는 제대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렵사리 과를 신설했습니다.

○권미혁 위원 과를 신설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부처마다 다 해서 자료로 보내 주고 있다고 하고 보건사회연구원에도 이게 보고서 형태로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으실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저희가 있는 자료를 한번 수합해 보고 그동안의 평가에 대한 것이 아마도 미미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 번 다시 정리를 해 보고 일단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3차 계획에도 굉장히 큰돈이 투입이 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 자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토론회나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여실 수 있으실지를 한번 고민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본인이 이 저출산·고령화 계획의 전담부서로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제일 힘드신 점이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많지만 한계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미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위원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이 문제에 전담을 할 수 있기에는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인 현실의 고민은 뭔가를 여쭤 본 거고요.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님께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초점이 좀 옮겨졌다, 옛날에는 보육 중심이었다면 만혼이나 비혼 대책 강화 쪽을 우리가 놓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혼이나 비혼 대책 강화에 대한 정책 목표나 방향을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 신혼부부 주거 지원, 결혼 문화 개선 이런 게 있고 또 인식개선 부분도 보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거나 인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문제, 만혼이나 비혼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성차별이 해소가 되는가, 성차별 임금 구조라든지 성차별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혼·비혼 대책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강화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마음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것이 안 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아까 여가부 논의에서도 보면 비슷하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가부의 그러한 인식이 다른 위원회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우려점이 많습니다. 여가부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성평등 문화나 성차별 구조가 타파돼야지만 만혼, 비혼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금까지 저출산대책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돼 왔던 게 사실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살펴보려면 사실은 결혼한 이후에 가정 내의 육아와 가사에 대한 성평등한 분배와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사실은 반드시 결혼을 하겠다는 비율이 놀라운 수치입니다. 7.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러한 인식개선이 전 부처가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위원회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횟수도 더 늘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이런 공감대 형성이 전 부처적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미혁 위원 이 부분이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장관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러 국무위원님들께 이러한 여성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 정책 자료를 제시하면서 열심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차 계획 점검 관련 간담회나 토론회 부분은 제가 세 분 간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 고령화지수가 우리 사회가 높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고령화지수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높은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광수 위원 결국은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생긴다 그 이야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맞습니다. 결국 출산율 저하……

○김광수 위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문제잖아요, 결국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정부가 10년 동안 거의 150조가 넘게 출산장려정책 또는 고령화대책에 쏟아부었는데 거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출산율이 거의 1.21명 정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돈들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크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2005년도에 1.08명 수준에서 이제 2015년에 1.23, 1.24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오르기는 올랐지만 투자 대비 큰 실효성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실제 실효성이 없었다. 그래서 1인당으로 환산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냥 5000만 원을 지급하지 그랬냐라고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을 계속 진행해 왔다고 하는 것들의 반증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출산·고령사회 1차, 2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시스템들을 보완해 나왔던 것들, 또 보완되어서 보육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보완되고 강화된 분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직접 연관은 안 됐지만.

○김광수 위원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시술, 지금 만혼화에 대한 만산화 이게 보편화되어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난임 문제가 터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확대가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 좀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내년부터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난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광수 위원 그리고 그 부분 말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난임시술이 지금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과정이 그렇게 녹녹치는 않습니다. 최대한……

○김광수 위원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고려를 해 보세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보세요. 고통들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다음에 2030 가임기 여성들 건강관리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미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대, 30대……

○김광수 위원 검토 중에만 있다고 하시지 말고 사실은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관리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들이 난임의 사전예방 차

원의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그 연령대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교육부차관님.

○교육부차관 이영 예.

○김광수 위원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아이를 낳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자녀 교육비 부담이고 양육비 부담이라고 하는 통계 알고 계시지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래서 누리과정 언급하셨는데 누리과정 지금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누리과정 항상 물어보면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줬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역에서는 2007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지방채, 지방교육청의 지방채가 늘어났고 작년 한 해만 4조 9000억 얻었어요, 지방채. 물론 그 지방채 중에 상당 부분이 명퇴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두 개의 요인이에요. 명퇴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그것 때문에 지방채 얻은 거예요.

지금 누리과정 어떻게 할 겁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누리과정은 교육적인 목적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그 부분에 정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채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과도기적으로 재원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면서 가용 재원을 늘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조금 더 확충되면서……

○김광수 위원 지방채의 주 원인이 누리과정예산하고 명퇴 부분 때문에 지방채 얻었다니까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것에 동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안살림으로 하면……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누리과정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전혀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협조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가장 큰 원인이 교육비하고 양육비 부담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들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되지요. 아이를 낳아놓으면 국가가 교육과 양육은 책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래서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한 특별회계법도 지금 상정되어 있고요……

○김광수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교육부라고 생각해요. 교육부 분발 촉구합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예.

○김광수 위원 국토교통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위 민간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분들이 요즘에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초저금리가 되어 버리니까 임대료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돈 빌려서 주택 구입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이것 좀 심각합니다.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형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그런 임대형 아파트는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효성 있게 정책을 펴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김광수 위원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금도 뉴스테이 임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호응도가 높고 들어가려는 청약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주거비가 인하되고 또 필요한 수요층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서초을 새누리 박성중 위원입니다.

정진엽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이번에 3차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1차 기본계획에서는 237개 과제, 2차 기본계획에서는 231개 과제, 3차 기본계획에서는 189개 과제가 발주가 되어서 목표는 합계출산율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1.5명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장관님은 자신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출산율 증가율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5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표를 잡은 겁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옛날 1·2차에 크게 다르지 않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상당히 올리기 힘들다고 보는데 1차와 2차와 3차의 차이, 특별히 강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3차에는 주로 그동안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결혼을 늦게 하는 것 또 결혼 안 하는 것 이런 원인이 주거나 교육 문제 또 결혼할 때 드는 많은 비용 또 결혼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인식, 가족의 가치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된다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해서 대책을 주로 마련을 했고……

○박성중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 가지고는 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간단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장관님이 답변 안 하고 뒤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대략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예, 2.1명.

영국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영국이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예, 1.9명.

스웨덴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스웨덴도 한 2.0 정도 수준으로……

○박성중 위원 예, 1.95에서 2.0.

미국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캐나다가…… 뒤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일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일본이 지금 1.42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독일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박성중 위원 독일도 1.4명 정도 됩니다.

스페인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1.3명 수준, 우리하고 비슷한 약간 밑에 그 정도 수준,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성중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합계출산율이 약간은 성공하고 있다는 나라와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의 차이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독일,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그런 데도 상당히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나라는 실패하고 앞에 언급된 나라들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프랑스 같은 나라는……

○박성중 위원 프랑스를 이야기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투자가 있었고 또 가족의 형태에 따르지 않는 충분히……

○박성중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프랑스에 대해서. 지금 제 동서가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고 직접 자주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아는데요. 프랑스는 애를 낳고 나면 출산축하금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출산축하금이 889유로, 우리 같으면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백이삼십만 원이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다음에 애가 3개월부터 세 살까지 매월 179유로, 한 20만 원 넘게 한 25만 원 정도 계속 나갑니다. 셋째부터는 50만 원 이상 확 뜁니다. 다인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국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40% 이상 할인되고 또 지하철, 버스, 공립 풀, 미술관 이런 전체가 2분의 1 이상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서 탁아, 우리가 지금 보육이 문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성중 위원 제가 그냥 묻기 전에 답변을 먼

저 드리겠습니다.

크레슈라는 탁아소가 100% 수용은 못합니다. 100% 수용은 못하는데 한 50만 명을 수용합니다, 크레슈 탁아소, 보육권이. 그런데 3세 미만이 프랑스가 240만입니다. 다 수용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계 어느 나라도 100% 수용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빼고 없습니다. 누리스라는 국가에서 인정한 보육사라고 할까? 이 사람을 신청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부모가 별다른 준비 없이 애를 낳아도 애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애를 낳으라 하냐? 애를 낳으면 우리는 재앙이고 프랑스는 축복이라고 그런 이야기 합디다, 남이 쓴 책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도 다각적으로 프랑스 쪽 내용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지만 프랑스의 여건하고 우리나라의 여건하고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우리의 여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주셨지만 일본과 같이 이렇게 문화가 비슷한 나라의 사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프랑스라든지 일본 사례를 깊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성중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라든지 다른 데서 나온 전문자료를 보니까 추상적으로 연구되어 있더라고요, 추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남이 쓴 것 베껴서 그대로 계속 나가고 책에 프랑스가 '아이가 천국인 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게 거의 추상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의식구조 변화가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는 의식구조가 집과 수입이 보장되어야 아이를 낳겠다는 구조입니다, 지금 의식,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맞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것을 먼저 깨야 돼요. 애를 낳으면 국가가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뭔가 획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으면 굉장히 난망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 3차 계획의 중요한 관점 중의 하나가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3차 계획을 들여다보니까 별로 없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주거 문제 해결하는 것.

○박성중 위원 주거 문제 해결도 지금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래서 그러는데요. 지금 1년에 신혼부부에 3만 채 공급합니다. 우리 1년에 결혼 30만 명입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왜 줍니까? 신혼부부에 줘서 애를 안 낳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기 낳는 부부에 더 우선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프랑스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여기 뒤에 앉아 있는 김상희 국장이 다음 주에 프랑스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한 8일 정도 가서 그 분야를 공부하러 보낼 예정입니다.

○박성중 위원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한테 여러 다방면으로 스크린해서 오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랑스 부분을 연구하고 오면 따로 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종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16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을 100조 이상 집행했지만 출산율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저출산정책하고 관련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온 것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윤종필 위원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성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그런 게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요, 주로 설문조사 위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심층적인 내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량조사로 하다 보니까 조사기법이 조금 껍데기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성조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국민 인식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과연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됐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앞으로 정성조사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향후에 앞으로 인식 조사를 개선하자 그래서 실제 정책을 이용할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밀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과 문화에 대한 설문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또한 정부가 2006년부터 15년까지 조사한 결과서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는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표본수나 표본추출 방법이나 조사방법이나 질문지 구성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최근 4년간 매년 조사기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조사결과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관련해서 최근 4년간 매년, 12년도에는 한국리서치, 13년도에는 월드리서치, 14년도에는 메트릭스코퍼레이션, 15년에는 유니온리서치 이런 식으로 매년 조사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바뀌었는데 이게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조사기관이 바뀌었던 게 사실입니다.

○윤종필 위원 매년 조사 회사가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조사 결과가 과연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조사 회사마다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최초에 가장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사 회사를 변경하지 않고 1개 조사기관이 계속 조사를 진행해서 해야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차를 줄이고. 그래서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정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 즉 정성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부분 또 조사기관을 바꾸면 매년 정확한 변화 측정이 어렵다는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서 앞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여쭤 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은 연구용역을 크게 해서 규모가 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성조사하는 것하고 조사기관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제대로 아

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제대로 해서 잘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막 교문위 회의를 마치고 교육부장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다 인사말씀이랑 하셨기 때문에 그냥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네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20대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특위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하는 이 자리가 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인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조 이상, 152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52조를 투입했지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어떤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 장래를 좌우할 심각한 문제인데요. 인구절벽은 바로 소비절벽, 성장절벽 또 경제절벽 또 우리나라를 절벽에 세우고 말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20년 동안 더 지속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장래는 사실상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럴 정도로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는 대단히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아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발도 떼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결혼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남성 75%가 신혼 주택비용을 결혼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국토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혼인 초기에 자가나 전세에 살았던 가구가 월세에 살았던 가구에 비해서 출산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 문제가 저출산에서의 핵심적인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진엽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만혼이나 비혼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강호인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결혼, 출산의 기피 요인 중의 중요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구 투자를 정말로 우선해야 되는데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매년 성장률 목표치를 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어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런 자세로 접근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저는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엽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박광온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또 취업 되더라도 200만 원 미만의 급여에 또 부부가 결혼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아이를 낳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단절이 되고 그래서 또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고, 이런 상황의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과 함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방안을 제안했는데 정진엽 장관님,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에 대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지요?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앞으로의 추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온 위원 예, 언제 정점이 됐다가 언제 고갈되느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2043년 정점에 도달했다가 그 이후에 적자로 돌아서서 2060년 되면 현재 자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적립금 추이를 산출해 내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요? 현재 출산율로 전제한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게 2013년도에 3차 추계 때 한 결과가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실무

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운용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4.67%라는……

○박광온 위원 어디어디에 투자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내외 주식 또 대체투자도 하고 있고 채권에도 하고 있고……

○박광온 위원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공공투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국민연금법 102조.

최근에 일부 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투자할 경우 출산율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그 연구 결과는 보지 않았는데 연구에 따라서 각도를 달리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 연구보고서가 있고요. 특히 국민연금을 통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할 경우 연금의 지속 가능성, 건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출산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여 드릴 것을 요청하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적으로 이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절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0.1%를 올릴지 0.2%를 올릴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방어적이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그런 인식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같이 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도 함께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의락 위원님과 박병석 위원님이 질의 순서를 바꾸신 거지요? 그러면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의락 위원님까지 오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석 위원 순서를 바꿔 주신 홍의락 위원님 고맙습니다.

대전 서갑의 박병석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께 하나 물어보고 제 의견을 각 장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줄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런데 저출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꾸 적어지니까 지금 민간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학생 수, 원생 수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별도의 투자비를 들여서 국공립을 따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국가의 투자 낭비도 줄이고 또 원생이 줄어듦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도 바로 그런 식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건 아파트에 보면 공동관리실 이런 데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 그런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경영이 어려운 데 이런 데를 저희가 국공립어린이병원으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을 요즘 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병원을 설치를 잘 못하는 게 지자체에 매칭 펀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같이 비용이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우리 장관께서 병원장 출신이라 자꾸 어린이집을 어린이병원이라고 말씀하시네

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죄송합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그것을 국공립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지자체와 함께 그것을 추진해 주시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병석 위원 네 분의 장관께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또 한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두 번 직접 주재하신 걸 보면 관심이 있으시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 저출산의 문제는 과연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효과를 봤느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유일한 길은 출산율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투자와 효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는 재정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을, 요소를 투입해도 효과가 오랜 기간 동안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검증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5년 정부의 임기는 자기 임기 때 투자만 하지 그 효과, 아웃풋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말만큼 집중하거나 여러 가지 재정 투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야말로 5년 정권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과제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서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 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 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병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서 이번에 저출산·고령화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의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정부만이 독점해서도 효과가 없고 또 전 시민적, 범정부적이 결합된다 하더라도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당적·범국가적인 시스템과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어떻게 그러한 기구를 만들고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깊은 고민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동의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동의합니다.

○박병석 위원 강 장관은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구조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 당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시한을 장기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모든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다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바로 초당적, 그다음에 5년 임기를 넘어선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시스템 마련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고민을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석하셔서 몰랐는데 최교일 위원님하고 이명수 위원님이 순서를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교일 위원님과 홍의락 위원님,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출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한 가정을 생각한다면 이 한 가정에 부모가 있는데 애가 하나도 없다면 두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크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을 얼마나 쓸 거냐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재부에서도 이 얘기를 심각하게 듣고 또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극단적으로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야 된다. 한 가정이 없어지는데 빚을 내서라도 애를 만들 수 있다면 애를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 재정을 편성해서라도, 정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인식에는 다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지금 3차 기본계획 발표하셨습니다마는 그것에 국한된다면 저희들 위원회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과연 어떤 실효적인 대책을 우리가 여기서 마련해서 실행하느냐, 실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마련해서 우리가 권고라도 하느냐 그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직장이 상당히, 직장의 문제 또 사회 인식의 문제 이렇게 좀 구별해 봤는데요.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 특위 위원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고 또 저도 이 특위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한 가지인데요. 다자녀 카드, 제가 자료 보니까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사실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세 자녀든 두 자녀든 이렇게 자녀를 많이 갖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는 카드나 증서나 훈장 같은 걸 줘서 정말 그게 있으면 암행어사 마패처럼 여러 가지가 해결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것 한 가지를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마침 프랑스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또 이런 제도가 전혀 없다면 그 실행 가능성이 약할 수도 있는데 마침 프랑스에,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준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강력히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걸 봤습니다. 아마 간호사 같은데 임신순번제를 한다. 사실 저희 검찰에도 여검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검사들이 순번제를 한다는 얘기를 사실 제가 오래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 검사 인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때……

여검사가 오면 다 싫어해요, 어느 부서에서든지. 아주 그냥 상사들이 여검사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런 인식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여성이 직장에 들어오면 이것 보배다, 우리나라에 애를 만들어서 우리 대를 잇게 할 수 있는 정말 보배 같은 존재다…… 예전에 과거에 조선시대 이런 때도 애를 낳을 수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특히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는 회사에서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경단녀' 그러지요, 경력단절여성이 국공립 교사, 공무원은 13.6%입니다. 그러니까 13.6%밖에, 애를 낳았다고 해서 단절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요. 정부투자출연기관은 26.9%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회사는 44.8%, 일반 회사는 한 반 가까이가 애를 낳으면 그 회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분위기가, 회사에서도 당장 회사의 일이 손해 보는 그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 문제가 신문에 한번 나면 '이거 큰일났다.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다가 또 바쁘니까 잊어버려요. 저도 무슨 일 하려고 할 때 잊어버리다가 일깨워 주면, 우리 보좌관이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장관님 네 분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엽 장관님부터 순서대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경력단절녀, 경단녀 문제 이게,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가정 양립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정부적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나 야근 문화 이런 것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인식도 같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전환형 시간제, 시간선택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90일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전부를 국가에서 휴가 급여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 대기업인 경우는 60일을 지원하고 30일은 기업에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경력단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는 주로 교원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급별로 조금 다르지만 70, 80%가 여성 교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 때문에…… 학교에서의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가 비교적 잘 정립이 되어 있고, 또 휴직을 할 경우에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도 비교적 잘 돼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그러한 기회를 확대해서 출산·육아 관련된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카드 문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부장관님이 카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정책 수단은 없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법적·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런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는 보면 일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자와 남자의 가사분담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미 여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가정 양립 정책에 핵심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가정 양립이 지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휴직 사용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일반 중소기업은 현재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 외에 비정규직 여성들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제도가 있지만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이라든가 그리고 모성보호제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을 위해서 아주 촘촘하게 제도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소기업에서도 이러한 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본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올해 1800개 목표를 하고 있고 2017년, 18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수를 대폭 확산해서 이런 기업에서부터의 문화가 변화가 되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마지막 질의로 홍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락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대구 북구을 무소속 홍의락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 얘기 계속 들어 보니까 10년 동안 125조 정도를 썼는데도 아직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된 것 보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잘못했다, 미흡하다라기보다는 접근 방법이 좀 틀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회의 같은 경우가 정례화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례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계부처 장관님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이 분야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견해차가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또 부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견해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의 성찬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현실과 정말 괴리가 많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양기관이나 학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면 정말 사람의 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들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방에서 그냥 곤욕을 겪는, 지역마다 곤욕을 겪는, 기관마다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리과정이 그렇고, 출산장려금도 각 지역마다 지자체별로 다 다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하나 우리 보건복지부장관님한테 여쭤 보면, 맞춤형 보육이 이번에 7월 1일부터 실시됐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홍의락 위원 실시됐는데 이 정책을 하신 이유

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산 줄이기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산 줄이기는 절대 아니고 저희가 그 예산은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맞춤형 보육을 하면서 1083억이라는 돈을 더 증가를 했습니다. 더 늘려서 시행을 했고요.

○홍의락 위원 어떤 분야에 돈이 그렇게 더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동안 이 보육료가 좀 현실화가 안 됐습니다. 표준보육비용 대비 현재 주고 있는 보육료가 좀 부족해 왔었고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홍의락 위원 지금 보면 맞춤형으로 가면서 보육료가 어린이집에서 보면 20%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보육료가 6%가, 작년 대비 6%가 올라갔고요.

○홍의락 위원 그래서 그것은 가정어린이집이고 민간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또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20%가 삭감됐다는 것은 저희가 맞춤반이라 그래서 종일반, 맞춤반…… 맞춤반을 20%로 했는데……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맞춤형이 들어가면서 삭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고, 예를 든다면 차량 문제 같은 경우도 배차 문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맞춤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3시까지 하면, 3시까지 해야 되는데 돈은 다 드리잖아요. 맞춤형이나 예를 들어서 종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례는 다 하고, 봉급은 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종일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현실과 괴리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금 보육교사는 딱 8시간 근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반의 경우 그 시간 근무는 원래 애들 오기 전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애들 가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 있고 또 교육계획 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8시간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종일반도 마찬가지고요.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8시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워지는 거지요. 어려워지고, 선생님들의 자리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아까도 얘기된 차량 문제나 그다음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맞춤형을 하고 싶어 하지 종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것이고, 그다음에 맞춤형에서 종일로 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종일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차 버리면 이동도 불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바로 연결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도 이런…… 저출산 문제나 우리 사회 문제에서 '예산 문제', '예산 문제' 얘기하지만 제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행동을 할 때 안정적이어야 되거든요.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책을 하는 것 보면 안정적이지를 않아요.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혼란과 혼돈이……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접근을 하는 데 혼란과 혼돈이 오면 그것이 정착되기가 어려운 건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제가 보면 굉장히 혼란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은 시행하는데 그것이 정착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보건복지부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한 4만여 개가 되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해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리해 들어갈지, 부작용이 발생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촘촘히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제도를 정착해 가고 있는 도중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예산을 우리가 줄이려고 한 건 전혀 아니고 필요에 맞는 대로 보육을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종일반, 맞벌이 부부들이 실질적으로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맡기고……

○홍의락 위원 제가 그걸 아는데 장관님이 한번

챙겨 보시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 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곧 다 잘 정착되도록 계속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그리고 우리 강은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홍의락 위원 이것은 간단한 질문인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사회 추이를 보면 결혼과 출산의 연결 문제라든가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미혼모가 애를 가졌을 때 우리가 좀 더 잘 키워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여성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정책을 잘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미혼모를 아주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1만 50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소년 미혼모나 미혼모가족시설은 80%에서 90% 정도 입소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도 살펴보면 이분들이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나면 주변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에도 수차례 주민센터나 그리고 산부인과에 이러한 내용의 전단도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이나 미혼모지원시설에 입소가 되거나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기간이나 이런 독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책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경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님 차례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위원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장관님들, 또 함께해 주신 간부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권미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출산·고령화특위는 20대 국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이런 통합된 논의가 시도되었습니다만 결과물을 잘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각 당 간사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들과 장관님들 사이에 업무보고하고 끝날 수가 없는 사안이어서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고령화는 고령화대로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공청회를 하는데 전문가님들도 단순히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반복적인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정부가 해 온 일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한 두어 차례 이상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해당 일정들을 잡아 주시면 성과 있는 특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성식 위원 지금 수치 목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저출산 관련해서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로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표 설정이 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2020년까지 출산율 1.5를 달성하고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1.75, 2045년도에 2.0까지 수준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까지의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목표치와 현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는 저출산 대책 간에 괴리는 없는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그동안 13년~15년까지의 출산율 상승분 또 그리고 3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

○김성식 위원 핵심만 좀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치를 아까 2030년까지 설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지금 해 보니까 거기까지 잘 갈 수 있겠다 없겠다를 놓고 평가하고 짚어 보고 한 내부 회의나 또 전문가들과 함께한 회의가 있냐 이 말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시작한 지,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이제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분석·평가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분석평가과를 신설해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설이 돼서 분기별로 성과 평가를 하고,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연말 이전에 저희가 정확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 정책, 저도 아침에 보고도 다 받았고 했는데, 수고를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닌데 좀 소소하게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인구 스테이지, 거기에 따라서 경제·교육·사회 모든 분야에 커다란, 말하자면 계곡을 맞이할 가능성이 저는 높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전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7개월 남짓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췄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분석평가과에서, 원래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는데 곧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그때까지 저출산특위 차원으로 장관님께서 수치 목표, 저출산 목표 달성 수치 목표에 연관해서 지금까지 정책이, 특히 3차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3차 계획을 하다 보니 어떤 보완이 있겠다라고 하는 내부 평가부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정리하셔서 저를 포함해서 저출산특위 위원님들한테 다 좀 나눠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정기국회 전까지 해 주셔야 돼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두 번째로 3차 목표는, 기존에 출산장려와 보육 정도까지 하던 것을 그 이후에 생애주기까지 맞춰서 고민을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가계와 정부의 역할만 많이 이야기했지 사실상 기업의 역할, 이것을 어디까지 강제하고 어디까지 권유하고 어디까지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에 대한 유효한 정책 수단이 잘 안 보여요. 그냥 해 보겠다는 거지요, 사실은.

유효한 정책수단, 이것은 좀 워킹을 할 것 같다, 말씀해 줘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기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업 정책, 제가 시간을 좀 관리해야 되니까,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기업에서 산전후휴가 또 육아휴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제도를 지금 고용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계나 정부 부문에서 나름대로 유효한 정책수단을, 그것이 충분치는 않다 하더라도 놓아져 있는 것을, 열거한 것을 봤는데 기업에 대한 유효한 정책수단을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복지부 포함에서 지금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유효한 정책수단을 우리 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또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거는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성식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는 제가 알아서 점검할 거고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주무부서로서. 자료 정리해서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성식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하나씩 따져

들어갈 거니까요.

교육부장관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봤는데요. 유·보통합, 교육부하고 여성가족부 양쪽 다 과제인가요? 주로 교육부 과제인가요? 유보통합 교육부 과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유·보통합은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아니,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부 문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유·보통합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왜 안 되느냐, 이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안 되는 복잡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김성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장관으로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을 해결해야 유·보통합으로 궁극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 점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하셔서 그 또한 마찬가지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다른 질의도 할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자료 요구하다가 시간이 다 갔고요.

위원장님, 제가 저 세 분으로부터 자료 요구받은 내용은 나중에 속기록에 게재될 수 있게, 자료가 들어오면 속기록에 게재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저도 김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하면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2001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비용의사회부담적용확대를위한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때 환노위에서 말씀하신 거 말씀하시나요?

○임이자 위원 예,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때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나 다른 재원으로 검토하라……

○임이자 위원 정확하게, 제가 읽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것도 뒤에서 주세요, 자료를.

장관님이 그 내용을 크게 한번 읽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일반회계 전입 확대 의견을 의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일반회계 플러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고용보험기금……

○임이자 위원 정확하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걸 정확히 숙지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환노위에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 실현이 해당 연도 사업 예산의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2011년도부터……

○임이자 위원 아니, 결의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의안을.

지금 출산·육아는 사회 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분담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건강보험에 먼저 우리가 요구를 했다가 건강보험 재정 형편상 안 된다라고 해서 다시 고용보험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임이자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넉넉지가 않습니다. 여유자금을 1.5~2배 정도 적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관련돼 가지고 0.7% 정도밖에 적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건강보험에서는 기금이 좀, 수지가 굉장히 좋아졌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현재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여유 있지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저출산 문제가, 결국은 또 아이를 생산해 내는 분들이 여성들이지 않겠습니까? 임신을 해서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워서 그다음에 출산하고 난 뒤에는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이 부분을 갖다 대상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가입자들만이 지금 혜택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들도 사실은 직장

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여성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과 같이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본인의 질병이나 건강 또 질병의 예방, 이런 데 쓰고자 돈을 낸 보험료입니다. 이거를 근본적인 목적과 다른 성격이나 대상으로 쓸 때는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더 깊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이자 위원 아니, 그건 물론인데요.

장관님, 오늘 저출산 문제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지금 나와 있는 자리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임이자 위원 결과적으로 아이를 생산해 내는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의 출산전후휴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문제 관련되어 가지고 고용보험 갖고는 기금이 지금 고갈된 상태라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 건강보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다라든가 이런 걸, 지금 장관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글쎄요, 저희가 고용부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텐데요. 당장 저희가 건강보험 재정을 여기에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임이자 위원 모든 여성이 편하고 여성의 삶의 질이 좋아져야 아이를 생산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임이자 위원 그러려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에 관련되어 가지고 주무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 아니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니, 고민은 물론 많이 하고 있고, 늘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민 모든 분들께서 내신 돈을……

○임이자 위원 장관님, 여기 2호에 보면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그랬는데, 국회가 한 얘기입니다. 국회가 한 얘기인데, 2001년도에 이 얘기를 하고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고민을 안 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건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임이자 위원 모든 여성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고민을 안 하시고 나오셨다 그러면 좀 실망이 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닙니다. 재원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들……

○임이자 위원 아니, 재원을 떠나서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출산전후휴가라든가 아니면 육아휴직 문제에 대해서 모든 여성이 다 골고루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과연 써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건강보험 갖고 하는……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낸다 쳤을 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좀 갖다 써야 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일반회계에서야,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찬성합니다마는……

○임이자 위원 그건 장관님 소관이 아니니까요 내일모레 기재부장관한테 여쭤 보기로 하고……

여가부장관님, 지금 아이는 누가 낳든지 간에 소중하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청소년이 아이를 낳든 아니면 미혼모분이든 누가 아이를 낳든 아이는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또 미혼모분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차별도 심하

고, 아이를 낳아서 대부분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임이자 위원 그런데 또 아이는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부모가 키우는 게 최고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지요? 여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약하다……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세요.

○임이자 위원 교육 부문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아이가 아팠을 때라든가 아니면 생활비 지원도 그래요. 생활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흡하기 그지없고, 거기에 대한 여가부 예산이 한 19억 정도 되지요, 청소년 아이? 굉장히 좀 열악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저출산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대책보다도 낳은 아이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잘 키워 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 깔끔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미가 충분히 이해되고 또 공감을 합니다. 다만 다소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나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교육 지원을 별도로 하고 또 그 아이들은 한부모가족시설이나 청소년미혼모시설에서 일정 부분 보육을 해 주고 있고, 별도로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교육부에서 제도가 바뀌어져서 수업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서 이런 시설에 입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다 썼나요? 1분 더 없나요?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린 겁니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지요.

○위원장 나경원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부산 사상 출신 장제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님,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2006~2010년도 96개 과제에 20조가 투자됐다 그러는데 이렇게 투자되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보고서 있습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한 과제당 이런 과제였는데 어떻게 분석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실무자한테……

○장제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11~15년도 95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이 95개 과제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집행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분석자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찾아서 위원님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장제원 위원 이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입니까, 정책입안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컨트롤타워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거는 최종 의결기구입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는 아니지요?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컨트롤타워는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장제원 위원 그러면 전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그 역할을 하는 데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컨트롤을…… 최고의, 정부에서 제일 위 상위기구고요.

○장제원 위원 국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총리께서 하시는 정책조정회의가 있고요, 그 밑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운영하는 실무위원회가 또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저출산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되고, 이것이 분석된 자료는 국무조정실 담당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국무조정실에서 매달 이거에 대한 진행도 점검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국무조정실도 아마 저출산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과를 하나 증설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왜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동안은, 저희가 원래 옛날에는……

○장제원 위원 짧게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사무국이 있었는데요, 사무국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전담할 조직이 좀 부족했습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 분석평가과가 하나 늘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분석평가를 왜 하시지요? 결국은 이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결과를 보고 어떤 정책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분석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맞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결국 컨트롤타워 역할, 주무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앞으로 이 부서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문제에 가장 고민이 깊은 일본하고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거 지금 돌려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3년도부터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2003년도에는 고이즈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 특명 담당 장관을 임명합니다, 일본은.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기획단에서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출범하는데 한국은 계속 위원회로, 여기 보면 집행기구나 어떤 집행과 그 집행 이후에 어떤 분석을 해서 정책을 다시 입안하는, 정책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아니고 자문기구 정도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도로 지금 가고 있고, 일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도 특명 담당이 되어 있고, 2007년도부터는 고령화 문제는 따로 분리를 합니다. 저출산 문제만 가지고 저출산정책만을 중점 기획·추진을 하고, 2015년도는 결국 내각부에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이 1억총활약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제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정말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의 정책을 입안하고 또 입안된 정책에 따라서 예산을 정교하게 확보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그 집행에 대한 결과를 사후 분석해서 다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구조나 직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장제원 위원 부족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장제원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국무조정실의 국무2차장 조직 내에서 지금 이렇게 저출산 문제를 정교하게 집행하고 구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타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2차장 주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이라는 게 복지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범정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장제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저출산 관련된 모든 정책을 틀어쥐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컨트롤타워가 국무조정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장제원 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장 입장에서 볼 때 그 국무조정실에서는 제대로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 지금 보십시오.

제가 아까 1차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을 왜

하나씩 하나씩 따졌느냐 말씀드리면 1차 기본계획에서 96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잘 실천했으면, 1차 기본계획이 집행만 잘됐어도 대한민국 출산율 이렇게 안 떨어져요. 정책은 잘 입안했는데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힘과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출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정부의 의지와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차 저출산 과제에서 뭐가 실패했냐고 물어보니까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대부분의 정책들에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가정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본다, 반성문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이 과제가,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정책의 집행을 정교하게 못 했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자, 그러면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맞벌이 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체계가 미흡하고, 체계가 미흡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행자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행자부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이 '체계가 미흡하고'라는 반성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반성문을 통해서 3차 기본계획은 만들어졌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한 겁니다.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세요.

○장제원 위원 제가 이렇게 첫 질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21년 만에 1.46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베 내각이 1억총활약상을 만들고 전담할 수 있는 장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아주 극대화시키고 이 일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 인해서 전 국민한테 이 분위기가 확산된 면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저출산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정책이 만들어지면 국토부, 행자부, 교육부 따로따로 내려가서 일이 진행되고 피드백을 보건복지부에서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총리실이건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직접 본부장을 하시든 간에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이번 특위를 통해서 그런 컨트롤타워가, 명실상부한 타워가 좀 생겼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장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님…… 원래 지나가시면 맨 마지막에 하시는 건데요. 인재근 위원님 하시고 두 분……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여성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미혼부모 지원정책에 대해서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는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바로 미혼부모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인재근 위원 이분들이 아이를 낳기까지는 아마 무척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갈등과 주변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정부의 지원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입양부모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만 16세까지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받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인재근 위원 그런데 미혼부모들은 소득인정액 144만 원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만 12세까지 10만 원씩 지급……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15만 원……

○인재근 위원 한부모의 경우에는 그러면 두 부모가 있으면 2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청소년 미혼부나 미혼모로 되어 있지 부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인재근 위원 그럴 경우 15만 원이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월 15만 원입니다.

○인재근 위원 양육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만 18세까지 의료급여 1종 혜택받는 입양아와는 달리 그런 미혼부모 아동들은 건강보험료의 10%에서 30%를 경감받는 데 그치니까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입양아동하고 미혼모의 아이들하고요. 또 입양아동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가 필요한 점이 인정되지요. 물론 입양아동들을 하니까 미혼모의 아이들도 해야 되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사회적인 편견, 눈길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입양아동들과 동등한 수준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고 또 심리치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하고요.

또 그다음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보면 개별 국가는 입양에 앞서 아동이 친부모와 헤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세계 제1위였어요. 입양 보내는 나라였는데 지금도 4, 5위라고 하는데 이런 미혼모 지원정책이 헤이그협약의 의의를 잘 새기고 있다고 보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입양 부분은 여성가족부 소관이 아니어서 나중에 복지부장관님께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는 있는데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보호자의 소득까지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한부모가 집을 떠나서 시설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통의 미혼부모에 따르는 지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학습비나 고교생 교육비 등도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시설에 들어오는 아이들 부모에게는 보육의 혜택도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설과 지원기관과 연계가 되지 않아서 자력으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러한 지원 부분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하고 떨어져서 시설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만 2년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하거나 직장을 찾을 경우에는 1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3년입니다. 그래서……

○인재근 위원 3년은 거기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안전하게, 그렇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러면 엄마가 일자리가 생겨서 그 시설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나경원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주거 지원은 국토부하고 해서 임대주택을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살펴보니까 그 3년을 지원을 받아도 완벽하게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전체 미혼부모나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300명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기간을 더 늘리고 보육해 주는 기간을 늘려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우선 정책을 한번 먼저 수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고 지원이 더 효율적이면 이 제도를 전체에 확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3년만으로는 이 어린 청소년 한부모나 또 일부 저소득 한부모들이 완벽하게 저소득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제가 제주도에 있는—한참 시간이 흘렀지만—미혼모의 집에 가 봤어요. 그런데 일단 거기 그 시설에 들어온, 전국에서 엄마들이 와 있는데 진짜 애기가 애기를 낳아 가지고 자기 새끼라고 죽죽 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거기 있을 때는 진짜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 시설이 굉장히 좋고 도에서 해 준 그런, 여성정책관실에서 해 준 그런 것인데 아주 너무 좋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거기서 나가면 어떻게 살까, 나가면 지옥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맞습니다. 3년을 지나서 시설을 퇴소할 때 그 중간 단계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시

설에 있을 동안 청소년 한부모나 한부모들이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3년을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지금 조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똑같이 다 귀한 아이들인데 운 좋게 탄생한 이 아이들을 우리는 잘 키울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방법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제원 인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임산부가 당했던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구 저희 지역구에 3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산부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매우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후 급하게 입원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동네의 병원을 찾았으나 여러 군데의 병원으로부터 임산부라는 이유로 입원도 치료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녀가 아프다고 말해도 임산부이기 때문에 치료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 거부를 당했고요. 또한 입원과 치료가 거부되다 보니까 관련 교통사고 합의랑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입원 기록도 진단서 기록도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합의에도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소개를 받은 병원에서 간단한 물리치료 정도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입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세 자녀를 데리고 있던 이 임산부는 초등학생 2명과 유치원생 1명을 어디다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아픈 몸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임산부가 존대받고 임산부에게 어쩌면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져도 부족한 이 마당에 임산부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진료도 보험적용도 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장치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임산부가 굉장히 역차별받고 있는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임산부에 대한 진료거부 사례를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진료 거부 얘기는 많이 나왔었던 얘기인데 특별히 제가 임산부에 대한 진료 거부를 따로 보고받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러면 자료를 따로 파악하시고 관리 감독이 됐다고 하는 것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정부가 보이는 시점에 이런 공익적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 병원에서조차 여러 가지 이유로 임산부가 진료를 거부받는 이것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 개인의 진료 거부 차원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사회가 이런 안전책과 임산부에 대한 우대를 펼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진료 거부가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픔도 참고 임신해야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출산 정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150조에 달하는 자금이 투여됐지만 출산율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는 임산부들이 혹시 받을 수 있는 역차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10년간 15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역대 OECD 국가 중에서 1.3명 미

만의 초저출산율을 경험을 한 나라는 모두 11개 국이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 국가가 지금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노인문제도 매우 심각한데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1위, 노인자살률도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152조 원을 투입한 효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누차 말씀 주셨지만 물론 투자 대비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8에서 1.2, 1.3, 1.4까지는 올렸는데 이게 미미한 것이고 우리가 더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앞으로 더 실효성 있는 데 더 집중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맞습니다. 심각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5년 동안 197조 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오전에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개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또 정부를 떠나서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집행 과정과 정책조율 또는 조정, 사업성 검토 등에 대해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고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동일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찬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정부에서는 총리께서 주관하시는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 주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찬대 위원 대통령께서 작년에 단 두 번만 회의를 주재하셨고요, 올해는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단 한 번도 주재하신 적이 없다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올해는 서면결의를 했고 곧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찬대 위원 다음에는 사회부총리이신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가 두 분 계시는데요.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가 각각 영역을 나눠서 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조율하고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맞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저출산·고령화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부장관께서 국토부의 저출산대책용 신혼부부 행복주택 사업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협의를 해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 간 지금 저출산·고령화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분석하고 그동안에 시행된 정책 중에서 이제 정책의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축소하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을 성과평가를 통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제가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회부총리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시지요.

○박찬대 위원 사회부총리께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작년에 역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단 두 번 다루셨고요,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국토부에도 행복주택과 관련된 질의를 일부 할 텐데요.

지금 복지부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의 운영지원단이 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찬대 위원 그리고 인구정책과장이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데 8월 말에 분석평가과를 신설한다고 해도 이런 규모로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해내기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대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닌 복지부장관이 맡도록 위

상이 낮춰지고 사무국은 아주 폐지됐습니다. 다행스럽게 2013년도부터 대통령이 다시 맡도록 격상됐지만 사무국은 부활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 당시와 같이 사무국을 부활시켜서 그리고 사무국에 파견 온 각 부처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를 조정하면서 실질적인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장관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사무국 부활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시간인데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10분 동안, 어느 의원님 토론회라고 그러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김광수 위원님의 저출산대책포럼에 잠깐 가야 됩니다.

○위원장 나경원 축사를 잠깐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10분만 이석하시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언제부터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나경원 지금 3시 20분에 가셔야 되니까 이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지요? 질문 하나 정도는 받으시고 가실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복지부장관님, 지금 보고한 내용의 17페이지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응체계가 이렇게 죽 설명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서는 전 사회의 연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모아져 있는 정책들이 각각 부처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 느낌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관돼서 큰 그림하에서 그렇게 효용성이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판단되고 있는가 이게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첩적이거나 또 때로는 모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각 부처별로 진행사항이나 이런 점검은 국무조정실에서 진행을 하고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평가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해서 이번에 분석평가과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더 치밀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 분석평가과는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아까 사무처라는 그렇게 독립된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것과 그렇게 어느 한 부서에 속하는 부서를 증원하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했었는데 사무국을 만드는 것은 성사가 안 됐고 분석평가과를 우선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인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셔서 이런 사무국이 편성되면 저희도 일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위원 장관님 자연스럽게 이석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살펴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라는 것이 과제로 언급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진단 내용에는 비혼 또 동거가족·가구의 사회적 편견 등으로 여러 차별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현실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19대 때부터 비혼 그러니까 동거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은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 자체 안에 이미 사회적으로 굉장히 차별적인 의식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이라는 제도 또

일부에서는 사실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는 굉장히 지체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대 때도 여가부 쪽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사회가 점점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꺼려하고 또 중간에 이혼율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재혼하는 가정의 비율들이 많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적응 문제나 주변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몇 년씩 그냥 동거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 나이 드셔서 사별을 통해서든 황혼이혼을 통해서든 혼자 살고 있다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여전히 가족들의 상속 문제나 여러 가지 친족관계 문제나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된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하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그런 우리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제가 4년 내내 생활동반자등록법 법안을 만들면서 다양한 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상황들을 체크했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 또 큰 제도, 가족제도라는 것에 다른 유연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통계자료, 여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관점으로 해서 이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가진 부모가 미혼이든 비혼이든 싱글이든 아니면 정말 나이 드신 노혼이든 그리고 그 부모가 가난하든 부자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아이가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올 때는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아이가 동등하게 키워져야 한다, 저는 이것을 명제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부터 가족제도라든가 경제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마련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어떤 가치나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각 부서들마다 지원책 이런 걸 막 하지만 그것이 집결되지 않고 계속 현상이 유지되는 것은 뭔가 사회에서 일관되게 큰 흐름이 사람들을 깊이 또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아주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비혼이나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없애는 것 이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저희 3차 기본계획에서도 이 비혼 또 동거가구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해서 현재 법무부에서 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말씀 주신 것, 사회적 통계자료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게…… 여성가족부하고 문체부도 일부 여기에 같이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가부, 문체부하고 저희 복지부하고 이 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 보고 어떤 해결점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좀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보건복지부장관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진선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기본적인 조사 같은 것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혼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부터 좀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예, 가족제도 전반에 대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큰 취지에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의 성숙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동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반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우선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인데 저는 각론적인 얘기보다 총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출산·고령화로 해서 많은 예산 투입과 인력을 여기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책을 나열하고 아무리 예산을 들인다 해도 효과가 결코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컨트롤타워 문제인데 아까 여러 의견들 말씀하셨는데 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지난번에 보건복지위 때 얘기했는데 만드는 걸 한번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복지부의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총리실에 조직을 만드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고요. 지금 그래서 대신 총리실 주관으로……

○이명수 위원 왜 총리실에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조직을 못 만들지요? 만드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체 조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총리실에 근무했는데 안 돼요? 해 보려고 시도도 안 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부처별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가 손발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중복되는 것도 많고. 간단한 거지만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통계도 안 맞는 게 지금 여기 당장 나와요. 여성고용률이 똑같은데 2014년에 여가부는 54.9%라고 4페이지에 돼 있고 복지부는 똑같은 여성고용률이 55.4%로 16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간단한 통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처 간에도 여기 보고하는 체계라든가 이런 게 손발이 안 맞는 게 지금 생기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컨트롤타워예요. 그래서 일본에 오죽하면 특임장관실을 따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 만들어야 된다, 지난번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예 시도조차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국회에서 특위 열리면 와서 답변하고 끝나고 가고 또 언제 특위가 만들어지면 답변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루틴(routine)한 생각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총리실에 못 만들면 확실하게 보건복지부라도 저출산·고령화대책실을 만들든가 이걸 누가 챙겨야 됩니다. 지금 백몇십조라고 하는 돈이 엄밀히 보면 사실은 냉정하게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만든 시책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책을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뭐 했느냐라고 하니까 많이 모아 좋고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실 저출산·고령화하고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관련 일을 모아 놓은 거지요.

제일 시급한 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줘라 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중앙에, 총리실에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얼마나 강조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총리실에서 만들든지 안 되면 보건복지부라도 만들어서 아까 같이 부처 간에 손발이 안 맞는 것 조정하는 것 이게 제일 문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일상적이고 단순한 일들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이것은 프랑스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획기적이고 특별한 노력이나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늘 하던 일 반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시책들이 부처는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미안하지만 그냥 원래 하는 일 갖다가 모아 놓은 거예요, 지금. 크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쇄신적인 일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너무 부분적인, 미시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종합적이고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이슈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처 간에 협업이 되어야 하는 문제고요.

역시 단기적인 과제에 주로 집중돼 있어요. 이것 어차피 금방 효과가 안 납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뭘 할 거냐 이렇게 좀 더 체계적인 접근, 이번에 새로 3차 계획을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백화점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일자리 문제하고 주택 문제하고 보육과 교육문제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부처에서 하는 일을, 노력을, 힘을 몰아보자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조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듭 얘기지만 이게 중앙부처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지방에 내려가면 큰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 가족계획 할 때 그때는 지방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을 평가라도 해 봐요, 시도 부처 단위로 해서 어디가 제일 잘하는가. 우리가 그런데 인센티브도 주고 정부가 지원도 해 주고 인력도 주겠다, 지방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행정만으로는 안 돼요. 민간이 참여해야 돼요. 민간에 관련 NGO나 기구 많거든요. 그러면 각자 그 기구들은 정부의 노력에 총론적으로는 맞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성과가 크게 안 보여요. 그래서 중앙의

노력을 지방과 현장에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시군구의 보건소가 기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저출산팀이 있습니까? 그런 데가 있습니까, 한군데라도?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현재 따로 저출산팀이라고 붙인 데는 없고요.

○이명수 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고, 대개 모자보건팀이라는 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 심지어는 읍면동에도 이런 팀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저출산팀을 만들어서 하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정하면 돼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나 틀이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늘 하던 얘기를 반복하다가 시간 지나면 성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계속 받게 되는 게 지금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많이 있는 시책에 뭐라 그럴까 R&D가 굉장히 약해요. 각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여가부도 관련 정책개발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아이디어나 R&D는 적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책들이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런 기관에 적극적으로 오더를 줘서…… 과거에는 우리가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을 못 해요. 저출산·고령화에 나온 아이디어라는 것들이 저도 공직생활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평범한 얘기들을 그냥 열거하고 있다고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당정협의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제일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게 보육하고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비용 때문에 애 하나 키우려면 몇 억이 든다, 학제를 줄이는 것을 해 보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검토를 해 봤나요, 지난번에 당정협의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당에서 공식으로 제기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이명수 위원 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명수 위원 물론 신중하게 해야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 결론밖에는 뚜렷하게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명수 위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백년하청식의 계속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하고 반복적으로 특위 만들고 반복적으로 답변하고 달라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애쓰는데 미안합니다마는 정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정진엽 장관이 안 계시는데 '최고의 삶'이라는 독후감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겪는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세로 이 문제를 각 부처마다 하는 것을 다시 챙겨 보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제발 이 컨트롤타워를 좀 만드십시오.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얘기를 또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 얘기를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안 달라져요. 그게 문제라고 보고, 이번에 차제에 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좀 달라지도록 해 주십시오. 우선 총론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네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우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처 간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조직은 비록 없지만 관계부처가 모여서 점검하는 체계는 이제 출범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속적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해서 좋은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라든지 민간 참여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지역 네트워킹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완성이 되도록 하고 지역에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수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

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 처리로 한다면 계속 그 상태의 반복입니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제원 위원 추가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잠시만요.

○위원장 나경원 예.

○장제원 위원 오늘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에서 모든 걸 취합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업무보고에 국무조정실장을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 더 가기 전에 내일 업무보고에 국무조정실 할 수 있는지 접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진선미 간사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진선미 위원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대 위원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위원님들 모두 같은 생각이신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바로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내일 국무조정실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박찬대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이렇게 세 분 추가질의……

○이명수 위원 저도……

○위원장 나경원 이명수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계셔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4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요,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행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36㎡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한 10평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12평 정도 됩니다.

○박찬대 위원 투룸형이고 사실 방 한 개에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는 1.5룸 구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신혼부부라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좁은 공간에서 자녀계획을 꿈꿀 수 있는 신혼부부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는 결혼 초기의 신혼부부들이 한두 명 정도 영유아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래는 행복주택이 아주 작은 규모인데 특히 신혼부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많아지고 또 성장해서 큰 주택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다른 국민임대주택이나 아니면 50년, 5년, 10년 그런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 우선공급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행복주택의 요지는 신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우리가 1년에 신혼부부가 한 30만 쌍씩 생기는데 신혼부부 30만 쌍 전부 다 행복주택으로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젊은 청년들, 갓 취업한 그런 청년들이 결혼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공급합니다.

물론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체적인 주택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한 호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찬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신혼부부 전용 행복주택 모집에서 많은 지구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의 행복주택 경쟁률은 높았던 것에 반해서 신혼부부 전용 행복주택의 경쟁률이 낮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행복주택의 주거환경이 출산계획을 고려한 신혼부부들에게는 혹시 적절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사실 이런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투룸 확보를 위해서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은 결국은 저출산 극복 아니겠습니까? 결국 36㎡의 주택이 신혼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도 면적이 좀 넓은 데서 그런 신혼부부들을 모시면 좋겠지만 또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임대료가 상승하고 또 공급 호수는 감소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재정 부담의 증가 등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정책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의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안 계셔서…… 다른 장관님들께서 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해서 각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들도 서로 이렇게 교류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없으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진선미 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련된 법안들이 그러니까 정책들이 각 부처별로 교류되는 정책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중복되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진선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고 긴밀하게 같이 논의하는 그런 구조들이 따로 있으신 것도 아니겠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금방 오늘……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하는 것 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주제로 하나를 삼아서 그동안에 추진되고 있는 각 부처별 정책들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빠진 부분이라든지 더 추가할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것 꼭 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결과물들을 또 정리된 것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리고 조금은 미세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가정…… 일·가정 양립만 고민을 하지 실제로 학업과 가정 양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는 육아휴학제도를 대학에서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시행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혼한 여성 대학원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육아·보육시설입니다. 학교 내에 그런 시설을 해 달라 하는 게 가장 큰 요청사항입니다.

○진선미 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 그런 것을 갖춘 대학이 참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각 대학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 교육부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렇게는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서울대 한 곳만도 대학원생의 20%인 2500명이 기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와 학업, 전적으로 연구에 몰입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 맞벌이 부부처럼 출산이 지원돼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진지하게 고민해서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진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장관님은 안 계신데 뒤에서 듣고 계시니까요, 중증장애인들도 실제로 출산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활동 보조나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방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진선미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되셨습니까?

○진선미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조금 하고…… 살펴보신다고 했으니까요.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복지부 장관님이 안 계셔서……

기존 복지부의 지원사업들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들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제대로 되면 이것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라는 게 복지부에 있는데요. 이분들 출산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2015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14억이었지요. 아주 적은 돈인데 그중에서 7억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지난 3년간 꾸준히 낮은 집행률을 보였어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홍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이렇게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해서 아기를 더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말씀하신 대로 신청률이 그동안 상당히 낮습니다. 54.6%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복지부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여기에서 우선 출산비용 지원서비스를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 산모들이 일괄 홍보·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지금 인터넷 매체라든지 장애인단체, 특히 의료기관 산부인과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재근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하셔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더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또 한 가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이 내년 10월에 난임수술 건보 적용이 확정되지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그렇겠습니다. 내년 10월부터 계획입니다.

○인재근 위원 그런데 그 건보 적용이 거의 1년이나 남았는데 손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그때까지, 내년 10월까지 공백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우선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 적용 전이라도, 이게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증진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난임수술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조금 더 넓히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난임부부들한테 도움을 주면 나라가 우리 아기 낳는데 정말 이렇게 도와준다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것을 갖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경원 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실장님, 복지부에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시군에 가면 센터가 보통 10개쯤 돼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이명수 위원 당장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센터만 해도 한 10여 개씩 되거든요. 여가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을 장소적 통합이 아니라 기능적 통합을 해 달라……

일자리도 몇 개입니다. 일자리창출센터—노인일자리,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기에 가면

'여기 아니니까 다른 데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것을 해 달라니까 왜 부처 단위로 센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냐고요.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센터를 지금 지역에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다음에 보육 문제 중요한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기왕에 남아돌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민간 어린이집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많이 남아도는데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 지을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 만든 게 많아요. 그것도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확실하게 내주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육부장관님,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

이게 총괄하시는 게 원래 사회부 장관이 하시는 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문제를……

○이명수 위원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작년에는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회의를 못 했는데……

○이명수 위원 사회부총리님이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고령사회 대책에 10페이지의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대학 구조 개혁 추진, 이게 고령사회 대책 맞아요?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364억이에요, 금년에. 대학구조개혁 68억 이게 고령사회 대책이 맞냐고요. 맞아요? 해외 유학생 유치하는 것하고 고령사회 대책하고 무슨 연관이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게 그러니까 고급기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명수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고령화사회에 따라서 기업에서의 인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명수 위원 장관님, 죄송한데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이명수 위원 여기의 공교육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는 10년 전부터 하던 얘기예요.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금방은 안 되는데 좀 변화 있는 새로운 시책을 내놓고 저도 제안을 좀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합니다마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이명수 위원 국토교통부장관님, 여기에 주택하고 교통안전 두 가지로 해 놨는데 국토·교통 업무에 저출산·고령화하고 관련되는 것 많습니다. 왜 딱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지요? 여기서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랬나요? 기본계획에 이 두 가지만 들어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닙니다.

○이명수 위원 당장 국토교통부에도 지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또 찾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아이고, 장관님이 찾으셔야지 제가 찾아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이명수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주택에도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육아시설 의무화시키는 것 일부 됐거든요.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만 되어 있어요. 또 경로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서부터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이렇게 하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어린이 교통안전 그게 언급돼 가지고……

○이명수 위원 좀 범위를 넓히고 정말 우리 부처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뭐할 거냐 그것을 고민해서 와야 돼요. 오늘 보고니까 그냥 복지부에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딱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닙니다.

○이명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제시를 해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감사합니다.

○이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오랜만에 이것 들으니까 반갑지요?

오전에 부총리께서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저출산대책이 지난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숫자를 쏟아부었는데도 실패한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그 정책이 먹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보육료 이삼십만 원을 주면 애기를 낳고 안 주면 안 낳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 문제는 대통령께서 특단의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직접 나서셔야 된다, 그래서 정부부처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핸들링해야 움직이지……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솔직한 얘기로 하면 아니, 지금 누가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제출하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5년 단임제하에서 5년 안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5년 안에 성과가 납니까? 그리고 5년 안에 또 장관 바뀌지 대통령 바뀌지 청와대 수석 바뀌지 하면 결국은 이게 장기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이 실행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보건복지부장관님, 교육부총리, 국토부 또 여성가족부 계십니다마는 암만 좋은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돈을 주는 기재부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두 가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국회에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국회랑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소한도 한 30년 장기정책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틀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 자리에는 꼭 기재부장관이 같이 배석을 해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리·부총리 협의 회의를 거의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예, 한번 좀 그렇게……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김학용 위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게 2005년입니다, 1.08명. 그때 제가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출생아 수가 얼마였냐면 15만 3798명이었는데 올해 4월까지 출생아 수가 14만 7900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결혼 건수를 분석을 해 보면 역시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출생아가 그렇게 많이 태어날 확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저출산기본계획 보면 2020년에 1.5명으로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지금 계획 첫해부터 이렇게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는데 1.5명 수치 이것 과연 목표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 복지부에서 저출산대책에 전력투구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각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장관님들이 해결 못 합니다. 장관님 길어야 한 2년 하다가 또 그만두지 않습니까? 후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것을 범정부적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뻔히 재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있어야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뭔 놈의 국회의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5만 명 되면 국회의원 1명이면 되지요. 국회의원은 뭘 뽑아요, 그냥 이장이 한꺼번에 해 버리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장관님들을 위해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역사에 남을 것 아닙니까? 지금 뭡니까, 1980년대의 합계출산율이 2.0인데 그때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해 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준식 부총리께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정말 천만다행인데 꼭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아니, 일본도 지금 나서 가지고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출산율이 낮은 한국에서 왜 이렇게 애써 인구문제를 외면하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박광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저한테 기회를 주시는군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통해서 출산율도 높이고 또 국민연금의 건강성도 확보하자는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최근에 연구기관 이슈, 그러니까 뭐지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반박성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투자로 인해서 출산율이 0.1~0.2 정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도 사실은 연금의 고갈 시기를 그렇게 많이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 요지입니다.

그런데 0.1이나 0.2를 상승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거지요, 사실 가정이지만. 지금 우리가 1.2에서 1.4로 올린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지요,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정책 하나만으로. 그런데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학용 위원님이 저렇게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가슴을 열고 모든 대책을 다 내놔야 됩니다, 방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못 오셔서 실무자가 오셔서 지금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라서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적자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아마 적자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주택도시기금 적립금과 잉여금이 13조 원 쌓여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런 것들은 최근에 청약저축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주택 첨가소화채권이 좀 늘고 청약저축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주택기금의 적립금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분양전환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적자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한번 따져 봐야 알겠는데요.

○박광온 위원 지금 임대주택 운용수익 적자는 아마 1700억 원 적자라고 그러는데 임대료 빼기 이자비용 플러스 관리비용 이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분양전환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분양전환을 하더라도 그게 아마 0.1% 정도……

○박광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자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것도 아마 수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예, 영향을 미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박광온 위원 거기에다 덧붙여서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임대주택 사업이 적자냐 흑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 재정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저희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임대주택의 스톡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으로 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투입된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아이를 낳아서 기를 신혼부부라든지 젊은이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임대료도 비싸고 또 하나는 뭡니까, 관리비도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임대료 수준이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박광온 위원 임대료 플러스 보증금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이 낳기를 권장해야 될 그런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분들에게 공급하자 하는 제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충분히 존중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존중해서 받아들이는데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매년 공급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전체 공급 규모와 또 우리 전체 주택시장 상황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아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광온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정말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질문해 주셨고요. 국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을 아마 오늘 장관님들을 비롯한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의 실효성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인 우리……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봐서 사실상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었느냐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로 수립된 3차 계획도 과연 그러하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냐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은 큰 그림부터 또 출발해야 될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온 기존 대책을 평가하고 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개최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간사님들하고 논의해 보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특위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장님, 지금 잠깐 제가 정정 말씀 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경원 예,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에 법적으로 보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고 사무국 역할은 저희 복지부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간사 부처라서 총괄조정 역할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서면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성식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박찬대 위원님도 서면질의하시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8일이 기한입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은 접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7인)

권미혁 김광수 김성식 김학용
나경원 박광온 박병석 박성중
박찬대 윤종필 이명수 인재근
임이자 장제원 진선미 최교일
홍의락

○청가 위원(1인)

금태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전문위원 이상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준식
차관 이영
학교정책실장 김동원
학교정책관 신익현
학생복지정책관 오승걸
대학정책관 서유미
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인구정책실장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강도태
연금정책국장 박인석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노인정책관 김헌주
보육정책관 정충현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기획조정실장 이기순
여성정책국장 최성지
청소년정책관 황진구
가족정책관 윤효식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기획조정실장 손병석
주택토지실장 박선호
교통물류실장 이승호
주택정책관 이문기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학용 나경원 박성중 윤종필 임이자 장제원 최교일 추경호	새누리당	2016. 7. 13.
권미혁 금태섭 박광온 박병석 박찬대 인재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김성식	국민의당	
홍의락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추경호	이명수	새누리당	2016. 7. 15.